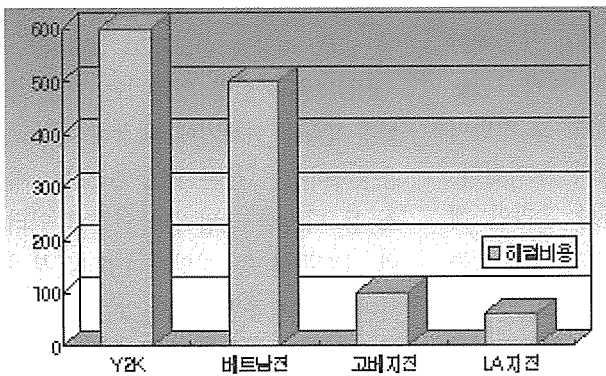




국내 산업체 밀레니엄 버그 해결비용 49조7천억원



▲ Y2k문제 해결비용을 다른 세계적 사건의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국내 산업체들이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는데는 총 49조7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투입돼야 할 인원도 연 7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전국 3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2000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49조7천억원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98%의 기업체들이 올해안에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반영된 비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인력 부족 등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2000년 문제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경영기획 책임자중 70.3%가, 전산정보 책임자는 78.4%가 각각 심각하다고

대답한 반면 건설업은 54.5%, 식음료 50.0%, 의복 신발류 업종은 45.5%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업종간 심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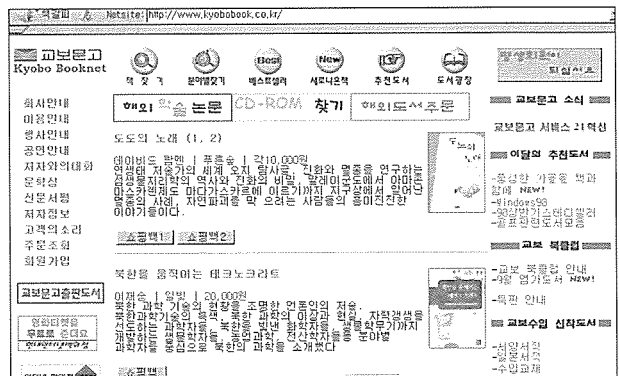
하드웨어별 2000년문제 해결비용의 경우 주전산기는 대당 5억3천3백만원, 워크스테이션 2억1천1백만원, PC는 9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또 총 소요인력은 한달을 기준으로 8백64만4천명이 필요하나 이 가운데 7백73만4천여명은 자체 인력으로

로 해결 가능하고 나머지 연간 7만5천여명의 인력은 외부에서 충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표본 업체들을 기초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99년 초에 인력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통신, 전력, 철강, 자동차, 중공업 등 규모가 큰 대형 기간사업들이 먼저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독서의 계절 맞아 '사이버 서점' 북적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종로서적, 영풍문고,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의 매장 뿐 아니라 이들이 인터넷에



▲ '사이버' 교보문고의 홈페이지.

개설한 '사이버 서점'도 책을 찾는 사람으로 북적대고 있다. 국내 가상서점 제1호로 지난해 5월 문을 연 인터넷 종로서적(book.shopping.co.kr)의 경우, 한달 평균 35만 방문건수에 등록회원만 13만명에 달하는 등 웬만한 지방의 대형서점을 능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종로서적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잇따라 개설된 영풍(www.yppbooks.co.kr), 교보문고(www.kyobobook.co.kr) 등의 가상서점들도 모두 최근 한달 평균 방문건수 20만회를 돌파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가상서점의 인기로 힘입어 최근에는 정보통신 또는 외국 서적 등 특정분야 서적만 취급하는 사이버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문을 연 '예스북'(www.yesbook.co.kr)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외국 서적의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6월 개장한 와우북(www.wowbook.com)은 컴퓨터 서적만 취급하는 '차별화된' 가상서점으로 유명하다. 이들 인터넷 가상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풍부한 도서정보. 종로서적의 경우 이달 초 현재 약 16만건의 도서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1천여건의 도서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도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와우북도 약 1만종에 달하는 컴퓨터 관련 서적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DB를 제공하고 있어 프

로그래머와 컴서적 출판기획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네티즌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가상서점을 통한 서적거래는 온라인 송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영풍문고는 2만원어치 이상의 책을 주문했을 경우 우송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그 미만이면 한번 주문에 1천원씩의 우송료를 받는다.

교보문고는 5만원 이상 주문했을 경우 무료이나 그 미만이면 1천2백50원의 우송료를 주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로서적도 주문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짜이고 그 미만이면 2천1백원의 배달료가 추가된다. 그러나 가상서점을 통한 온라인 책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낙후된 우편배달 제도', '불안전한 전자결제 및 보안시스템' 등 아직 제거해야 할 제도 및 기술적인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인터넷 서점 운영자들도 단편적인 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고급 독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출판동향 및 비평 등의 정보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ISDN 복합형 전화기 쏟아져

전화기 1대로 음성은 물론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복합형 전화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슈퍼네트, 뉴텍정보통신, 헨텔레콤 등 ISDN 단말기업체는 망종단장치(NT), 디지털모뎀(TA: 터미널 어댑터), PC통신에 필요한 S/U카드 기능을 모두



▲ 슈퍼네트에서 개발한 ISDN용 복합형 전화기 '슈퍼렉스 IP5000DLX.'

내장해 전화기 1대로 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전화기 개발에 성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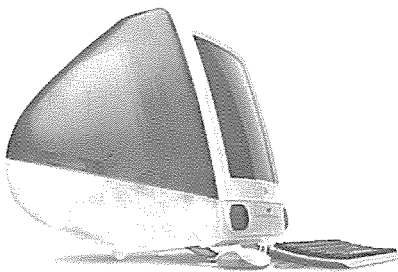
ISDN용 복합형 전화기는 기존 통합형 TA를 전화기에 내장해 디지털 음성서비스는 물론 PC, 노트북, 팩스 등 다양한 단말기와 연결해 인터넷, PC통신 등 다양한 ISDN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슈퍼네트는 최근 ISDN용 복합형 전화기(모델명 슈퍼렉스 IP5000-DLX)를 내놨다. 이 복합형 전화기는 NT/TA/PC카드/디지털 전화기 등 4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디지털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성 및 데이터 전송품질이 우수하다.

특히 128kbps급으로 데이터 통신 중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게 되면 64kbps 속도로 변경되고 전화사용이 끝나면 다시 128kbps로 복귀되는 자동채널변경(BACP)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합형TA, ISDN용 라우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헨텔레콤도 우선 TA기능을 내장한 ISDN전화기를 올 하반기까지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ISDN용 복합형 전화기를 국산화할 계획이다.

뉴텍정보통신, DXO텔레콤 등도 별도 개발팀을 구성하고 'TDX-

1B/10/10A' 등 국내 교환기는 물론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에릭슨 등 외산 교환기와 연동할 수 있는 ISDN용 복합형 전화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화기만으로 손쉽게 ISD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컴퓨터 신제품 '맥' 열풍 한국 상륙 대비



▲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며 11월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인 애플컴퓨터의 신제품 '맥'.

수려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애플컴퓨터의 신제품 '맥' 열풍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되자마자 미국 컴퓨터시장 판매대수 조사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한 '맥'은 9월 초 일본 상륙, 12월까지 예약 판매가 끝나는 등 전세계에 걸쳐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맥' 인기의 첫번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독특하고 신선한 디자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일체형 케이스와 따분하고 천편일률적인 연갈색 컴퓨터를 일거에 퇴물로 만들어버린 녹색 반투명 색상. 이 하나만으로도 '맥'은 기존 컴퓨터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애플사는 이 제품이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각종 매장·인터넷카페 등 디자인이 중시되는 곳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은 성능면에서도 탁월하다. 펜티엄 400MHz와 맞먹는 처리속도를 가진 233MHz 파워PC G3프로세서, 대용량 4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최대 128MB로 확장할 수 있는 32MB SD램, 24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 제품 가운데 최초로 56Kbps 모뎀을 장착했고 10/100베이스T 이더넷 커넥터와 4Mbps의 적외선통신기술(IrDA)을 갖추고 있는 등 인터넷을 의미하는 '맥'의 'i'자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통신 및 네트워크 기능도 강화했다.

브라우저 이용에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지금까지 매킨토시 제품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만을 웹 브라우저로 채택해오던데서 벗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맥'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PC용 주변기기 접속규격인 USB(Universal Serial Bus)를 채택했다는 점. 이 규격을 지원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스캐너·저장매체 등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주변기기 연결에 제한이 있던 매킨토시 기종으로서는 파격적인 변신을 한 셈이다.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를 없애고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색상 및 디자인을 컴퓨터와 일치시켜 미래형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 애플의 제품으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1천3백달러라는 가격도 소비자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맥'이 지난 70년

대 탄생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II' 이래 컴퓨터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애플의 회심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초 출시될 예정. 애플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엘렉스컴퓨터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 국내 소비자 가격을 2백20만원선에서 책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접속' 가전제품 등장



▲ 미국 NCR사가 내놓은 '인터넷 접속' 전자레인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은 물론 홈뱅킹, 홈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최첨단 가전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업체 NCR사는 최근 고속모뎀을 부착,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레인지 제품을 개발,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 문이 컴퓨터 화면 역할을 하며 전자우편과 웹 검색은 물론, 홈뱅킹, 홈쇼핑 및 TV수신까지 가능하다. 별도의 입력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기능을 선택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제작됐다. 또 음성인식기능이 있어 음성 명령으로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요리도중 토마토 잼이 필요하다면 바로 전자레인지 홈쇼핑 버튼을 누른

후 온라인 주문을 하면 되고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되면 즉시 인터넷 요리 사이트에 접속, 요리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은 특히 대금 결제시 비밀번호나 신용카드가 필요 없이 눈동자의 홍채를 인식해 신분을 확인하는 최첨단 인식기술을 채용, 보안이 완벽하다. 한국NCR측은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최고급 전자레인지 수준을 넘지 않을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내년 초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월드 PC엑스포’에서는 일본 벤처기업 V싱크가 개발한 인터넷 냉장고가 선보였다.

이 제품은 브라우저를 탑재,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고 가정 내의 가전제품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메를로니 엘레트로도메스티치도 인터넷 검색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리스톤 디지털’이란 상표명의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이 회사 가전제품은 정전방지와 고장탐지, 애프터서비스센터에 경보를 보내기 위한 모니터 기능 및 전력소비 조절 기능도 갖추게 된다. 특히 전자레인지의 경우, 원격조정 요리프로그램과 요리법을 검색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시스템이 내장될 예정이다.

스팸 메일을 막을 수 있는 몇가지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전달되는 수십, 수백통의 스팸 메일. 이들중에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메일을 골라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

라 짜증나는 작업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10가지 프로그램은 폭주하는 스팸 메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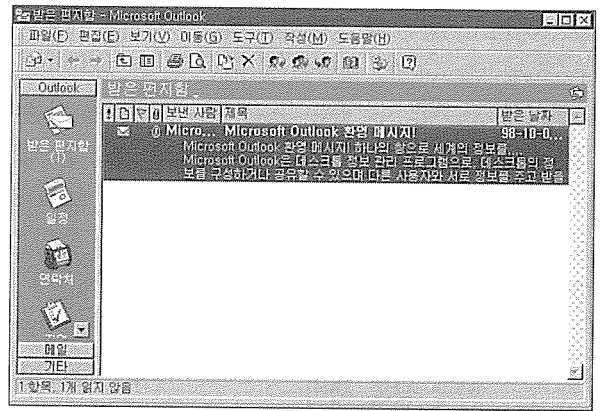
1. 바운스 스팸 메일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이 바보가 된

다. 이 제품은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그 메일을 되돌려 보내버린다. 마치 상대방의 주소록 관리자가 당신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작동한다.

2. 아웃룩 98용 메일제일 라이트 : 미리 정해놓은 2백가지 규칙에 따라 매일 쏟아지는 전자우편을 검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정크메일, 스팸,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알 수도 있다.

3. 스팸 버스터 : 이 정크메일 킬러는 메일 박스에 스팸 메일이 도착하기 전에 삭제해 버린다. 이 프로그램에는 스팸 메일을 보내는 1만5천곳 이상의 주소가 내장돼 있다. 메일이 오면 보낸 곳의 주소를 파악, 내장된 주소와 일치하면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4. 스팸 헤이터 : 스팸 헤이터는 정크메일을 보낸 사람을 추적해서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준다. 이는 메시지의 헤더를 이



▲ 스팸 메일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중 하나인 '아웃룩 98용 메일제일 라이트'를 실행한 화면.

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헤더가 아무리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프로그램인 아웃룩 익스프레스, 넷스케이프 메신저, 유도라, 페가수스, AOL, 그리고 컴퓨서브 등을 지원한다.

5. 스팸 킬러 : 이 제품은 이용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프로그램에 내장된 블랙리스트에 등록시키거나, 잘 알려진 스팸머들을 등록시킴으로써 스팸 메일이 당신의 메일박스에 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제품이다. 내장된 블랙리스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스팸머의 리스트에서 당신의 주소를 제거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스팸 메일을 보낸 곳으로 자동으로 보내준다.

6. 스팸머 슬래머 : 유도라나 넷스케이프 메일에서 작동하는 제품으로 스팸 메일을 쉽고 빠르게 검열한다. 설치한 뒤 지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환경설정이 이뤄진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①